

원 저

## 사상체질에 따른 땀(汗)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최재영, 이영섭<sup>1)</sup>,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동국대학교 통계학과<sup>2)</sup>

### The Characteristics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ae-Young Choi, Yung-Seop Lee<sup>1)</sup>, Seong-Sik Park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Statistics, Dongguk University<sup>2)</sup>.

**Objectives :** This paper was for studying the features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to be helpful to make a diagnosis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ill be helpful to diagnose a Sasang constitution.

**Methods :** There were 504 patients(214 men and 290 women) who answered questionnaire and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at constitutional clinic of Dongguk Bundang Oriental Hospital. Using the response of questionnaire and several statistical techniques, we tri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 depending on its sweat behavior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Taeumin and Soyangin had, on the average, more sweat than Soeumin( $p<0.01$ ). In a view of feeling after sweating, Taeumin and Soyangin feels more fresh than Soeumin who feel tired( $p<0.01$ ). (*J Korean Oriental Med 2002;23(4):186-195*)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Perspiration, Questionnaire, Homogeneity Test, Multiple Comparison

## 서 론

『東醫壽世保元』<sup>1)</sup>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2)</sup>에  
는 각 체질에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리적 또는 병리  
적인 증상 즉 素證들이 기술되어 있다. 사상의학에서  
는 汗, 大便, 小便, 睡眠 및 消化狀態 등의 素證이 체  
질과 체질병증을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  
한 병증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써 관찰된다<sup>3)</sup>.

素證의 특징에 대해서는 大便<sup>4)</sup>, 小便<sup>5)</sup>, 汗出<sup>6,7)</sup>, 睡眠<sup>8)</sup>  
등에 대한 문헌적 연구가 있었고, 이 등<sup>9)</sup>은 汗·大  
便·小便에 대해 체액배설의 관점에서 자율신경계와  
의 관련성을 고찰한 문헌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素證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이에 저자는 임상적으로 체질진  
단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방법을 이용하  
여 체질에 따른 땀, 대변, 소변, 수면 및 소화 등의 평  
소 양상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중 본 연구  
에서는 땀의 특징에 관해서만 보고하고자 한다.

『東醫壽世保元』에서 태음인은 汗液通暢을 完實無  
病的 조건으로 보았고, 땀의 부위와 진퇴로써 병의

· 접수 : 2002년 9월 5일 · 채택 : 2002년 11월 6일  
· 교신저자 : 최재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  
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031-710-3723, E-mail : wodud9208@yahoo.co.kr)

예후를 판단하기도 하며, 소음인은 汗出의 有無로써 鬱狂證과 亡陽證을 구분하고, 人中에 땀이 나는 것을 病愈之汗이라 하였으며, 소양인의 경우 表裏病을 막론하고 手足掌心에 땀이 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등 땀의 관찰이 통해 체질 및 체질병증의 진단, 병의 有無 및 병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땀(汗)에 관한 문항의 설문지를 임상적으로 체질진단이 시행된 대상자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그 답변을 정리하고 체질별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조사하여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문항을 제시하여 추후 설문지를 만드는데 참고로 삼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2002년 3월 14일부터 2002년 9월 5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하여,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 판단을 받은 후, 사상인 체질에 따른 한약을 20첩 이상 복용한 외래환자 중 설문지를 작성한 5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 1) 자료조사 방법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진단을 시행한 대상자 504명에게 땀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게 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체질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만든 차트를 이용하였고, 그 내용은 표 14와 같다.

#### 2) 자료처리 및 통계

설문지의 대답을 모두 코드화 하여 전산 입력하였으며 진단된 체질을 함께 입력하고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BMI 지수는 ANOVA test를 이용하고, 유의성 있는 경우 Scheffe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땀에 관한 설문항목의 답변과 체질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하였다. 설문문

항의 내적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10.0을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 성별 · 연령별 분포

연구대상자 504명의 연령분포는 10대부터 80대까지이고 평균연령은 39.9세이며, 성별은 남자 214명(42.5%), 여자 290명(57.5%)이다(표 1). 대상자의 체질분포는 표 2와 같다.

#### 2) 체질별 비만정도 비교

BMI(Body mass index, 체중(kg)/키(m)<sup>2</sup>) 지수를 비만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체질과 BMI 지수를 비교한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의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BMI 지수에 따라서는 태음인≠소양인≠소음인=태양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소음인과 태양인은 BMI 지수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2. 설문지를 통한 체질별 땀의 비교

#### 1) 체질별 땀의 비교

##### (1) 땀의 多少

태음인과 소양인은 평소에 땀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소음인은 평소에 땀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체질별로 땀의 多少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p 값이 0.000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체질간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0, 소양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0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Table 1.** 성별 연령별 분포.

	≤19세	20-39	40-59	≥60	total
남자	18 ( <sup>a</sup> 3.6%)	100 (19.8%)	72 (14.3%)	24 (4.8%)	214 (42.5%)
여자	18 (3.6%)	130 (25.8%)	106 (21.0%)	36 (7.1%)	290 (57.5%)
total	36 (7.1%)	230 (45.6%)	178 (35.3%)	60 (11.9%)	504 (100.0%)

a) % of total

**Table 3.** 체질과 BMI 지수.

	태음인 (N=148)	소양인 (N=125)	소음인 (N=223)	태양인 (N=8)	total (N=504)
BMI 지수	<sup>a</sup> 25.85±2.70	23.11±2.63	20.65±2.39	19.96±2.26	22.78±3.37

a) Mean±S.D.  
p<0.01

**Table 4.** BMI 지수의 다중비교(Scheffe 방법을 이용)

(I) 체질	(J) 체질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태음인	소양인	2.7375*	0.3089	0.000
	소음인	5.1982*	0.2696	0.000
	태양인	5.8853*	0.9230	0.000
소양인	태음인	-2.7375*	0.3089	0.000
	소음인	2.4607*	0.2841	0.000
	태양인	3.1478*	0.9274	0.010
소음인	태음인	-5.1982*	0.2696	0.000
	소양인	-2.4607*	0.2841	0.000
	태양인	0.6871	0.9150	0.905
태양인	태음인	-5.8853*	0.9230	0.000
	소양인	-3.1478*	0.9274	0.010
	소음인	-0.6871	0.9150	0.905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 發汗後의 상태

소양인과 태음인은 땀을 흘리면 상쾌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소음인은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체질별로 發汗後의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p 값이 0.000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체질간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본 결과, 소양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0,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26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8).

(3) 땀의 병리적 특징

**Table 2.** 체질별 분포.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148 ( <sup>a</sup> 29.4%)	125 (24.8%)	223 (44.2%)	8 (1.6%)	504 (100.0%)

a) % of total

체질별로 땀의 병리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①번 문항의 p 값이 0.000, ②번 문항이 0.002, ③번 문항이 0.002, ⑤번 문항이 0.000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표 9), 각 체질간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①번 문항의 답변을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1, 태음인과 태양인은 0.042, 소양인과 소음인은 0.012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0).

②번 문항의 답변을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1, 소양인과 소음인은 0.018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

③번 문항의 답변을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27, 소양인과 소음인은 0.000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2).

⑤번 문항의 답변을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0이었고, 소양인과 소음인은 p 값이 역시 0.000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3).

2) 설문간의 내적 일치도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표 14).

**Table 5.** 체질별 땀의 多少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평소에 땀이 많은 편	60 (*45.1)	44 (40.4)	35 (17.8)	1 (14.3)	140 (31.4)	0.000
보통	42 (31.6)	32 (29.4)	70 (35.5)	3 (42.9)	147 (33.0)	
평소에 땀이 없는 편	31 (23.3)	33 (30.3)	92 (46.7)	3 (42.9)	159 (35.7)	
total	133 (100.0)	109 (100.0)	197 (100.0)	7 (100.0)	446 (100.0)	

a) % within 체질

**Table 6.** 체질별 땀의 多少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470
태음인	소음인	0.000*
태음인	태양인	0.252
소양인	소음인	0.000*
소양인	태양인	0.389
소음인	태양인	0.919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8.** 發汗後의 상태에 대한 동질성 검증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678
태음인	소음인	0.003*
태음인	태양인	0.269
소양인	소음인	0.000*
소양인	태양인	0.232
소음인	태양인	0.104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7.** 체질별 發汗後의 상태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땀을 흘리면 상쾌한 편	35 (*37.2)	35 (43.8)	27 (20.0)	2 (33.3)	99 (31.4)	0.000
별로 문제가 없는 편	36 (38.3)	28 (35.0)	49 (36.3)	4 (66.7)	117 (37.1)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	23 (24.5)	17 (21.3)	59 (43.7)	0 (0.0)	99 (31.4)	
total	94 (100.0)	80 (100.0)	135 (100.0)	6 (100.0)	315 (100.0)	

a) % within 체질

**Table 9.** 체질별 땀의 병리적 특징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①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29 (*19.7)	36 (28.8)	94 (42.3)	4 (50.0)	163 (32.5)	0.000
②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인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이때 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	24 (16.4)	26 (20.8)	73 (32.7)	1 (12.5)	124 (24.7)	0.002
③ 대체로 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는 편이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난다.	27 (18.4)	31 (24.8)	23 (10.3)	0 (0.0)	81 (16.1)	0.002
④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고 감기가 걸리면 손 발바닥에서 땀이 나와 병이 낫는다.	1 (0.7)	4 (3.2)	6 (2.7)	0 (0.0)	11 (2.2)	0.457
⑤ 땀이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흘리는 편이며 땀을 많이 흘려도 큰 이상이 없다.	58 (39.5)	36 (28.8)	25 (11.2)	2 (25.0)	121 (24.1)	0.000
⑥ 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진다.	21 (14.3)	27 (21.6)	42 (18.8)	3 (37.5)	93 (18.5)	0.216

a) % 주어진 문항에 응답한 비율

**Table 10.** ①번 문항의 동질성 검정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080
태음인	소음인	0.000*
태음인	태양인	0.042*
소양인	소음인	0.012*
소양인	태양인	0.205
소음인	태양인	0.667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12.** ②번 문항의 동질성 검정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197
태음인	소음인	0.027*
태음인	태양인	0.182
소양인	소음인	0.000*
소양인	태양인	0.108
소음인	태양인	0.338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11.** ②번 문항의 동질성 검정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356
태음인	소음인	0.001*
태음인	태양인	0.769
소양인	소음인	0.018*
소양인	태양인	0.572
소음인	태양인	0.228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13.** ⑤번 문항의 동질성 검정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066
태음인	소음인	0.000*
태음인	태양인	0.414
소양인	소음인	0.000*
소양인	태양인	0.818
소음인	태양인	0.233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14.**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 평가

요인	설문항목	항목제거후 알파값	Cronbach's alpha
땀의 多少	평소에 땀이 많은 편	-0.7904	
	보통	-0.8677	
	평소에 땀이 없는 편	-0.9234	
發汗後의 상태	땀을 흘리면 상쾌한 편	-1.2943	
	별로 문제가 없는 편	-1.1708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	-1.2100	
땀의 병리적 특징	①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1.2054	-1.4322
	②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인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이때 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	-1.5587	
	③ 대체로 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는 편이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난다.	-1.3424	
	④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고 감기가 걸리면 손 발바닥에서 땀이 나야 병이 낫는다.	-1.5096	
	⑤ 땀이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흘리는 편이며 땀을 많이 흘려도 큰 이상이 없다.	-0.9002	
	⑥ 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진다.	-1.6396	

설문의 alpha 값이 -1.4322로 나타났고, 구성 설문 항목 열두개 문항 중 땀의 병리적 특징에서 ②번, ④번, ⑥번 항목을 제거한 결과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높아졌다.

반면 땀의 多少, 發汗後의 상태에 대한 설문은 구성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을 제거하더라도 alpha 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 설문 구성의 일치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고 찰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sup>1)</sup>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2)</sup>에서 각 체질에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리 병리적 증상 즉 素證을 기술하고 있으며, 『東武遺稿』<sup>10)</sup>에서도 일부 설명되어 있다.

그 중 땀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素證을 논한 病變 第五統에서 태양

인과 태음인의 신체는 땀이 많으면 병이 없고, 땀이 없으면 병이 있으며 소양인과 소음인의 신체는 땀이 없으면 병이 없고, 땀이 많으면 병이 있다고 하였다(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sup>9)</sup>). 또한 『東武遺稿』<sup>10)</sup>에서도 소양인, 소음인은 땀이 없으면吉하고 태양인, 태음인은 땀이 있으면吉하다(少陽少陰人 無汗則吉 太陽太陰人 有汗則吉<sup>10)</sup>)고 하여 체질에 따른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질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음인의 경우 汗出의 有無로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분하며(蓋鬱狂證 都是身熱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自汗出也<sup>11)</sup>), 소음인의 병이 낫는 경우의 땀은 人中에서 먼저 나고 한번 땀이 나면 가슴이 시원하고 활발해지나, 亡陽된 경우의 땀은 人中에 땀이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며 여러번 땀이 낫는 데도 가슴이 답답하고躁하며 기운이 없어지기도 한다(少陰人 病愈之汗 人中先汗而一次發汗 胸膈壯快而活發 亡陽之汗 人中或汗或不汗 屢次發汗 胸膈悶燥而下陷也<sup>11)</sup>).

또한 소음인 泛論에서 二吉證과 二急證을 설명하는데 二吉證은 人中汗, 能飲水라 하였고, 二急證은 發熱汗多, 下利清水라 하여 병의吉凶을 예측하는데 땀의 관찰을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소음인의 급병에 그吉凶을 점치고자 하면 마땅히 人中에 땀이 나는지 안나는지를 보아야 한다(少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人中之汗不汗也<sup>12)</sup>)고 하였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병이 있을 때 表裏病을 막론하고 손바닥·발바닥에 땀이 있으면 병이 풀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나지 않으면 비록 전신에 다 땀이 나도 병이 풀리지 못한다(少陽人病 無論表裡病 手足掌心有汗則病解 手足掌心不汗則雖全體皆汗而病不解<sup>13)</sup>)고 하였다. 또 上消證의 설명에서 소양인의 大腸의 맑은 정기가 胃에 만족하여 머리와 얼굴과 사지에 차서 넘치면 땀이 나지 않을 것이며 소양인이 땀나는 것은 陽氣가 약한 것이라고 하였다(少陽人大? 清陽 快足於胃 充溢於頭面四肢 則汗必不出也

少陽人汗者 自是陽弱也 而服涼膈散病已 則此病即上消 而其病 輕也<sup>14)</sup>).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소양인의 급병에 그吉凶을 점치고자 하면 마땅히 팔꿈치 바깥쪽에 땀이 나는지 안나는지를 보아야 한다(少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肘外之汗不汗也<sup>15)</sup>)고 하였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땀에 관한 언급이 타체질에 비해 많은 편이다. 完實無病의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소화, 대소변의 상태, 땀의 상태를 증시하였는데, 태음인은 땀이 잘 나면 完實無病한 건강의 상태라고 하였다(太陽人 小便旺多 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 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 則完實而無病<sup>16)</sup>).

태음인은 땀의 有無뿐만 아니라 부위도 중요시하는데, 땀의 부위와 진되는 병의 경중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고, 땀으로 병이 풀리는 과정을 보면 태음인이 背部 후면과 頭腦 이하에 땀이 있고 面部 髮際 이하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은 凶證이며, 얼굴 전체에 땀이 있으나 좌우 耳門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은 죽으려는 징조라 하였다(太陰人 背部後面自腦以下 有汗 而面部髮際以下 不汗者 凶證也 全面皆有汗 而耳門左右 不汗者 死證也<sup>17)</sup>). 대개 태음인이 만일 귀 뒤 高骨과 面部 髮際로부터 가슴에까지 땀이 많이 나면 병이 완화되는 것이다. 髮際에서 나는 땀은 죽기를 면한 것이며, 이마 위의 땀은 겨우 위험을 면한 것이며, 眉稜의 땀은 완전히 위험을 면한 것이고, 觀骨 위의 땀은 회복될 것이 명백하고, 입술과 턱의 땀은 병이 이미 풀린 것이며 가슴의 땀은 병이 완쾌된 것이라고 하였다(大凡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 而病解也 髮際之汗 始免死也 額上之汗 僅免危也 眉稜之汗 快免危也 顛上之汗 生路寬闊也 唇顛之汗 病已解也 胸臆之汗 病大解也<sup>18)</sup>).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태음인으로 몸이 차면서 전신과 사지에 모두 크게 땀이 나는 것은 危證이나, 다만 몸이 따뜻하면서 정수리에서 얼굴 광대뼈, 목, 등의 순서로 차례로 땀이 나면 좋은 징조라고 하였다(太陰人急病 身冷而全體四肢俱大汗者 危證也 但身溫而頂顛項背次第得汗者 吉兆也<sup>19)</sup>).

또 태음인의 땀은 처음에 정수리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기빠할 만한 것이고, 중간에 광대뼈에 땀이 나면 위험을 면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등에서 땀이 나면 병이 나은 것이라고 하여(太陰之汗 始於頂者可喜也 中於顴者 免危也 終於背者 病愈也<sup>2)</sup>) 『東醫壽世保元』에서 설명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땀의 형태로 보면 태음인 땀은 이마 위에서 나거나 眉稜 위에서 나거나 顴骨 위에서 나거나를 막론하고 땀나는 것이 기장쌀알 같고, 熱이 좀 오래 있으면서 거두는 것은 正氣가 강하고 邪氣가 약한 것이니 좋은 땀이며, 땀나는 것이 작은 쌀알 같거나 혹은 줄줄 흘러서 알맹이가 맺히지 않다가 잠시만에 거두는 것은 正氣가 약하고 邪氣가 강한 것이니 좋은 땀이 아니라고 하였다(太陰人汗 無論額上眉稜上顴上 汗出如黍粒 發熱稍久而還入者 正強邪弱 快汗也 汗出如微粒 或淋漓無粒 乍時而還入者 正弱邪強 非快汗也<sup>1)</sup>).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태음인이 병이 들어 앓는 중에 몸이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나면 그 병이 비록 위중하더라도 끝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으며(太陰人病中 身濕有汗則 其病雖重 終當效也<sup>2)</sup>), 태음인의 急病에 그 吉凶을 점치고자 하면 마땅히 이마 위에 땀이 나는지 안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太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顴上之汗不汗也<sup>3)</sup>).

마지막으로 태양인은 관해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태양인의 急病에 그 吉凶을 점치고자 하면 마땅히 外腎에 땀이 나는지를 보아야 한다(太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外腎之汗不汗也<sup>2)</sup>)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헌에서 기술한 내용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문항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 방법을 통해 체질별 평소 땀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주로 체질진단의 방법론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sup>11-17)</sup>,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체질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체질진단을 시행한 대상자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각 체질에

따른 땀의 평소 양상을 알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땀의 多少, 發汗後의 상태 및 땀의 병리적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땀의 多少에서는 태음인(45.1%)과 소양인(40.4%)은 평소에 땀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소음인은 대체로 평소에 땀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표 5).

특히 소음인 중 46.7%가 평소에 땀이 없는 편이라고 답변하였고, 보통이 35.5%이었으며, 평소에 땀이 많은 편이라고 답변한 경우는 17.8%에 불과하였다. 체질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음인이 태음인·소양인과 각각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표 6) 체질 진단시에 참고할 수 있는 항목으로 사료된다.

태음인과 소양인의 땀의 多少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태양인과 다른 체질과의 차이도 없었으나 태양인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향후 관찰치의 수를 늘려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發汗後의 상태에서 소양인(43.8%)과 태음인(37.2%)은 땀을 흘리면 상쾌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소음인(43.7%)은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체질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음인이 태음인·소양인과 각각 유의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태음인과 소양인의 발한후의 상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태양인과 다른 체질과의 차이도 없었으나 역시 태양인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다.

위의 땀의 多少와 發汗後의 상태를 정리한 결과, 진단측면에서 태음인은 汗多而爽快, 소양인은 汗流而不疲, 소음인은 汗少而疲<sup>18)</sup>라고 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發汗後 상태에서는 소양인이 땀을 흘리면 상쾌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특이한 점이다.

셋째, 땀의 병리적 특징에서는 6개의 문항을 통해 정리하였다. ①번(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②번(대체로 땀이 적은 편인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이때 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 ④번(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고 감기가 걸리면 손 발바닥에서 땀이 나야 병이 낫는다.), ⑥번(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진다.) 문항은 평소 땀이 적은 편인 경우 병이 생겼을 때의 몸의 상태를 묻는 문항이고, ③번(대체로 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는 편이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난다.), ⑤번(땀이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흘리는 편이며 땀을 흘려도 큰 이상이 없다.) 문항은 평소 땀이 많은 사람에서 병이 생겼을 때의 몸의 상태를 묻는 문항이다.

체질별로 땀의 병리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각 문항을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①번, ②번, ③번, ⑤번 문항이 체질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①, ⑤의 두 문항은 위에서 땀의 多少를 묻는 것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고, ②, ③의 두 문항은 땀이 적거나 많은 경우 병리적 상태에서 몸의 변화를 묻는 문항이다.

땀의 병리적 특징을 묻는 6개의 문항은 여러 가지 사실을 동시에 묻는 문항으로 답변하기에 좀 변수가 많은 문항이었던 것 같다.

한 문항에서 묻고 있는 한가지는 그렇지만 다른 내용은 그렇지 않을 때 응답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을 듯하다. 설문지 문항은 내용이 명료하고 분명한 한가지 사실만을 묻는 것이 좋은데, 이 문항들은 설문지 문항으로는 산만하고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설문지에서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을 제거하고자 설문지를 신뢰도를 측정하고,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조사하였다.

본 설문지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설문지의 alpha 값이 -1.4322였고, 구성 설문 항목 열두개 문항 중 땀의 병리적 특징에서 ②번, ④번, ⑥번 항목을 제거했을 때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높아졌다(표 12). 따라서 ②번, ④번, ⑥번은 전체 설문에서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체질별 평소 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가 건강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대상자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건강한 상태의 평소 증상이 아니라 어떤 병이 있는 상태로 인해 평소와 다른 素證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평소상태와 함께 현재 주소증과 관련하여 素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문항의 추가가 필요할 듯하다.

둘째, 체질의 특성상 태양인의 수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다른 체질에 비해 아주 적었다. 태양인의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관찰치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

셋째, 땀의 병리적 특징을 묻는 문항들에서 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묻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응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체질적 성향을 원문에 충실하게 반영한 문항이었으나 설문지 문항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자의 시각에서 만든 설문지 보다는 대상자가 작성하기에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체질별 차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2002년 3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여 사상인 체질에 따른 한약을 20첩 이상 복용한 외래환자 중 설문지를 작성한 504명을 대상으로 땀의 양상을 묻는 문항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체질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체질에 따른 땀의 多少를 비교한 결과, 소음인은 평소에 땀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태음인과 소양인은 평소에 땀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체질간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2. 체질에 따른 發汗後의 상태를 비교한 결과, 소음인은 땀을 흘리면 피곤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태음인과 소양인은 상쾌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체질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3. 체질에 따른 땀의 병리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①번 문항(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에서는 소음인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태음인은 응답한 경우가 적었으며 ( $p<0.01$ ), ②번 문항(대체로 땀이 적은 편인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이때 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에서는 소음인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태음인과 소양인은 응답한 경우가 적었으며( $p<0.01$ ), ③번 문항(대체로 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는 편이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난다.)에서는 소양인과 태음인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소음인은 응답한 경우가 적었으며( $p<0.01$ ), ⑤번 문항(땀이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흘리는 편이며 땀을 많이 흘려도 큰 이상이 없다.)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소음인은 응답한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01$ ).

4.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 구성 설문 항목 열두개 문항 중 땀의 병리적 특징에서 ②번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인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이때 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 ④번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고 감기가 걸리면 손 발바닥에서 땀이 나야 병이 낫는다.), ⑥번 (땀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땀을 내면 몸이 가벼워진다.)의 항목을 제거한 결과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설문에서 이 문항들은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개정판. 서울: 여강출판사. 2002; 87, 156, 166, 185, 218, 281.
2. 金九翊(魯山) 筆,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50-60.
3. 宋一炳.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8; 10(2): 1-14.
4. 李廷燦, 金達來. 大便을 中心으로 한 四象體質 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2; 4(1): 171-7.
5. 金善豪, 金達來. 小便 辨證의 四象醫學的 觀點과 傷寒論의 觀點에 對한 比較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2; 4(1): 179-86.
6. 서용, 송정모. 發汗에 對한 四象醫學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2): 56-66.
7. 河萬秀. 汗을 中心으로 한 體質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3; 5(1): 125-31.
8. 朴星鎮, 金達來. 四象醫學에서의 睡眠障礙에 關한 文獻的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5; 7(1): 127-34.
9. 李敬愛, 朴性植, 李源哲. 四象醫學의 汗·大便·小便에 對한 考察. 大韓韓方內科學會誌. 1996; 17(1): 123-38.
10. 李濟馬. 國譯 韓醫學大系 15 -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221.
11.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에 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1985; 6(1): 40-7.
12.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의 標準化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8(1): 186-246.
13.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의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6; 8(1): 247-94.
14. 장현록,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에 對한 太陰人 診斷의 妥當性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1): 45-50.
15. 박은경, 박성식. 設問紙 問項에서의 體質別 應答 差異 比較分析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1): 157-72.
16. 김태균, 김중원.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

- 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1): 173-85. 144-55.
17. 박은경, 이영섭, 박성식.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18. 權英植. 四象鑑別法에 對하여. 醫林. 1973; 97: 15-20.